



GE Rolls-Royce
Fighter Engine Team



News Release

2005년 6월 13일

F136, 엔진 테스트 성공에 이어 SDD 계약 준비

GE 롤스-로이스 전투기 엔진팀(FET: Fighter Engine Team)은 모든 예비 시스템개발 및 시연(SDD) 테스트를 예정보다 일찍 주어진 예산 하에 완료하는 등 F-35 차세대통합전투공격기(JSF) 탑재용 첫 F136 엔진 테스트를 수행한지 1년도 안되어 주요 성과를 거두었다.

예비 SDD 시험의 성공적인 수행은 8월로 예상되는 SDD 계약 체결을 더욱 명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F136 엔진은 F-35 JSF 항공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경쟁엔진 기종인 F135 엔진과 완전 호환이 가능하며, 미 해병대와 영국 해군의 STOVL 형, 미 공군의 CTOL 형 및 미 해군의 항모형(CV) 모두에 대해 호환성을 가진다.

III 단계 테스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상 이착륙(CTOL) 및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이착륙(STOVL)에 대한 터보팬 엔진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2대의 F136 엔진은 III 단계 시험에서 18시간의 STOVL 테스트를 포함해 총 200시간 이상에 달하는 테스트 시간을 축적했다.

FET의 사장이자 본부장인 밥 그리스월드(Bob Griswold)는 “SDD 계약 체결을 기대하며, 일정보다 앞선 엔진 납품과 우수한 시험 결과 산출을 통해 예비 SDD의 성공적인 수행 또는 그 이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톰 하트먼(Tom Hartmann) FET 부사장은 “우수한 엔진 호환성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통해 우리 팀은 F-35 항공기 설계의 유용성을 확대시킬 수 있었으며 F136 엔진의 STOVL 시험 과정 동안 학습력을 촉진시켰다”고 설명했다.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과 최신 기술이 접목된 F136 엔진은 모든 JSF 파생기종에 대한 정비도, 적정도 및 신뢰도 요구조건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일정에 따르면, SDD 개발 테스트는 2006년에 시행하며 F136 엔진이 탑재된 F-35 초도기는 2012년에 인도된다.

Notes:

F136의 60%를 책임지고 있는 GE Transportation 항공기 엔진 사업부는 압축기 및 연성 고압/저압 터빈 시스템 구성품, 제어장치 및 보기류(액세서리), 그리고 오규멘터(추력 상승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롤스-로이스는 전방 팬, 연소기,



GE Rolls-Royce
Fighter Engine Team



News Release

저압 터빈 2 단/3 단 및 기어박스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제 협력 국가들은 엔진 개발 및 구성품 제작을 통해 F136 에 기여하고 있다.

오늘날 GE 롤스-로이스 전투기 엔진개발팀(FET)의 기술적 근간은 GE 와 Allison Engine Company 가 IHPTET 프로그램(미국정부 주도 통합 고성능 터빈 엔진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공동진행협정을 체결한 1994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FET 는 JSF 팀의 통합 멤버로 F-35 용 호환가능한 F136 엔진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독자적인 사업 및 기술 사례를 꾸준히 입증해 오고 있다.

롤스-로이스 소개자료

1. 롤스-로이스는 전세계적으로 민간항공, 국방 항공우주, 해상 그리고 에너지 등 4 개 분야 시장에 걸쳐 활약하고 있다. 롤스-로이스는 500 개 이상의 항공사, 4,000 개의 기업 및 다목적 항공기 및 헬리콥터 운영회사, 160 개국의 군대, 그리고 70 개국의 해군을 포함한 2,000 개 이상의 해양업체 등 광범위한 고객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약 120 여개 나라에 에너지 업체들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2. 지난 2004 년 창립 100 주년을 맞이한 롤스-로이스의 연간 총매출은 약 60 억 파운드(약 110 억달러)에 달하며, 그 중 55%는 서비스 수익이다. 수주액은 210 억 파운드 (약 390 억달러)로, 이 금액은 서비스 수요와 함께 향후의 기업활동 수준을 가능케 해 준다.
3. 롤스-로이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각 정부 기관, 그리고 대한민국 육-해-공군에서 운용 중인 300 대 이상의 항공기에 대해 500 대 이상의 엔진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롤스-로이스의 워터제트, 프로펠러는 현재 대한민국 해군, 해양경찰 및 해안경비청에서 운용되고 있다.
4. 롤스-로이스는 한국을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장기적 협력 파트너로 보고, 국내 사업운영 방식으로써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생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5. 약 80 여명의 직원을 둔 부산 소재의 해양장비공장을 통해 롤스-로이스는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조선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주요 조선업체에 가스 터빈을 공급함에 따라 세계적인 정유, 가스 그리고 발전 업체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장착되고 있다.
6. 삼성 테크윈은 롤스-로이스의 국내파트너사로서 2001 년 서명한 장기계약 하에 롤스-로이스가 생산하는 에어버스 A380 용 Trent 900 엔진의 연소실 모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rolls-royce.com 을 참조.

문의: CPR 차유정 02-739-7353 / junecha@icpr.co.kr
추윤희 02-739-7313 / katechoo@icpr.co.kr